수보리에게 들려준 자유로운 길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⑳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金剛經〉은 불교서적 중에서 영원한 베스트셀러다. 삼국시대에 전래되어 고려중기 보조국사 지눌에 의해 초심자들이 공부하는 경전으로 독송을 권한 이래로 조계종의 소의경전이 된 지금까지 모든 스님들과 신자들의 사랑을 받는 경전이다.

Vajra-cchedika-prajna-paramita-Sutra(바즈라 체디까 쁘라즈나 파라미타 수트라)는 구마라즙, 보리유지, 진제에 의해 〈금강반야바라밀경〉으로 한글대장경 제 243책 pp113~167에, 현장과 의정에 의해 번역된 〈능단금강반야바라밀경〉은 제 206책 pp450~488에 실려 있다. '금강' 은 다이아몬드, '반야' 는 지혜, '바라밀' 은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는, '경' 은 가르침이니, 다이아몬드와 같이 견고하고 날카롭고 빛나는 지혜로써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다.

이 경의 가장 큰 뜻은 파이집 현삼공(破二執 現三空)이다. 나에게 집착하는 아집과 나 외의 모든 것에 집착하는 법집,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집착들을 깡그리 부수어 버리고 나면 그 즉시 나도, 법도, 이 모든 것들도 고정된 실체가 없음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공(空)은 없음이 아니다. 사물(色)이 존재하는 모습, 물질의 최소단위인 쿼크와 힉스가 물질을 이룰 때와 이루지 않을 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조화와 공존을 알게 된다. 분명히 없으면서 에너지가 충만하여 즉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낼 수 있으니 진여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수고 말고 할 것 없이 이미 청정한 그 자체로 구족해 있다는 것이다. 집착하지 않는 삶이 주는 가장 아름답고 자유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 바로 〈금강경〉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금강경〉은 수보리라는 부처님의 제자를 통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 즉 나는 누구이며, 내 삶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은 어떻게 하며, 타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

수보리는 부처님의 십대제자로 기원정사를 세운 급고독(수잣타)장자의 조카다. 이 경을 이해하기 위해선 수보리의 출가를 살펴봐야 한다. 수보리는 자신의 큰 아버지인 급고독장자가 사업으로 코살라국에서 제일가는 재벌이 되었지만 가족과 타인에게 재물에 관한 한 아주 엄격한 잣대를 지니고 있어서 어린 나이이지만 반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 분이 마가다국의 여동생 집에 다니러 갔다가 죽림정사에서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돌아오더니 안 팔겠다는 기타태자의 동산을 금으로 깔아가며 사더니 기원정사를 만들어 부처님께 기증하여 코살라국의 국민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하기 위함이란 것을 들으며 코웃음을 쳤다.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성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또 다른 사업수완이 발동한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본래 수보리는 천재였다. 천재가 자신이 처한 환경이 맘에 들지 않아 불타는 분노가 치솟을 때,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발광한다고 한다. 까칠한 소년으로 변한 수보리는 방황하는 사춘기아이들과 함께 사고뭉치로 전락하고 있었다. 가족들이 수보리를 위해 부처님과 만나게 하려고 여러 각도로 노력해보지만 소용이 없었다. 덧없는 인생이란 것에 또 한 덧없는 부처님을 만나본들 그 또한 덧없기 때문이라면 돌아서는 아이를 바라보는 가족의 마음 또한 고통이었다. 수보리는 사람에게 답을 얻지 못하자 지나가는 동물에게 고함을 빽빽 질러가며 답을 말해달라고 하니 숲속의 동물들도 도저히 감당 못해 산신에게 SOS를 쳤다. 산신은 수보리를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로 갔다. 그곳에서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는 것이지 무엇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는 서로 자비로 대하고 은혜를 베풀며 서로 이익이 되도록 도와가며 살아야 한다. 너 혼자 잘난 체 하고 나만 잘 살자고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수보리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출가했다. 〈계속〉

〈서울 반야사 주지〉

선지식 그리고 정법의 특징 '지혜'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⑳ 금강경 제7분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또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밝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며 그들 상황에 알맞게 설법하시었다. 그러나 부처님이 가신지 2500여 년 사람이 달라지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당연히 부처님의 설법도 당연히 달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전에 써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이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는 보편적 가르침 즉 정법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전에 써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 시대 이 사람들에게 항상 알맞게 적용된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참정법이란 이시대의 선각자 즉 선지식이 지도하는 불법이라야 정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참선수행법이 모두 정법이 아니요, 선지식이 지도하는 참선법이 참정법이 된다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선지식은 어떤 특성을 지니며 선지식이 지도하는 정법은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정법이란 그 가르침을 되풀이 실행하므로 사람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특성이 있어야 된다.

또 사람을 무지의 어두움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만드는 특성도 지녀야 한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가르침, 무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르침은 참부처님의 가르침이 될 수 없으며 물론 정법이 될 수도 없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가장 밝으실 때 설하셨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잘 살펴본다면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부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소 나마 알게 된다.

금강경 제 7분에 부처님께서는 일체현성(一切賢聖)은 개이무위법(皆以無爲法)에 이유차별(而有差別)이라 말씀하시었다. 즉 선지식은 형상이 없는 가르침을 사람에 따라 달리 설법한다라는 말씀인 것이다.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잘 음미하면 선지식이라면 사람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 동일한 설법을 하지 않고 수기설법을 한다는 뜻이다. 수기설법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듣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이 밝도록 설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을 토대로 선지식을 생각하면 선지식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일 것이며, 겸허한 사람일 것이며 티를 내지 않는 사람일 것이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일 것이며, 자신을 말을 듣지 아니한다고 성내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는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일 것이며 난제에 대해 매우 슬기로운 대답을 하여주는 사람일 것이다.

선지식은 수기설법을 통하여 사람을 밝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불자들에게 자신의 지식자랑을 하지 않는다. 또 경전을 해석하는 교육지식을 많도록 주입시키는 교육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재승덕박(才勝德薄)이라는 말씀처럼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을 지혜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지식은 사람의 마음 속에 부처님과 똑같이 무한한 지혜가 내재 되어 있는 것을 알고 힌트를 주어서 그 지혜를 끄집어 내게 할뿐인 것이다. 또 선지식은 사람들에게 돈이나 정성을 자신에게 요구하지 한다. 선지식은 무엇을 가져와야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데, 이유는 사람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난제를 다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갖추어져 있음을 알기 때문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 보살은 어법(於法) 응무소주(應無所住) 행어보시(行於布施) 소위(所謂) 부주색보시(不住色布施) 부주성향미촉법(不住聲香味觸法) 보시라 하시었는데, 이 말씀은 조건없는 보시, 즉 무주상(無住相)의 보시를 연습함으로써 부처님의 광명을 차단하는 무시겁의 업보업장을 소멸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 결과 무량복덕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오온이 공함을 '이 뭣고' 로 비춰라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 행심반야바라밀다시(行深般若波羅密多時) 조견오온개공(照見五蘊皆空) 도일체고액(度一切苦厄). 〈반야심경〉의 일부인 이 말은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춰보고 고액(苦厄)을 건넜다"는 의미이다. 부처님께서 반야부를 21년간 설(設)하셨는데, 중생을 생사고(生死苦)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성제(고집멸도) 중 고(苦)를 멸할 수 있는 유일한 길(道)이며 진리에 이르는 길을 핵심적으로 함축시키 내용이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 이다. 반야는 조견(照見)할 수 있는 지혜인데, 오온의 통속서 '이 뭣고' 로 비추어 우리의 몸과 온갖 감정의 현상계를 텅 빈 것으로 깨닫는 지혜가 관자재이며, 분별과 집착을 모두 내려놓는 방하착(防下着)이 행심이다.

승조대사 송(頌)에 보면 "사대원무주(四大元無主) 오온본래공(五蘊本來空) 장두임백인(將頭臨白刃) 유사참춘풍(猶似斬春風)"이란 말이 나온다. 이는 "사대로 이루어진 몸뚱이는 원래 주인이 없음이요, 오온은 본래 비어 있음이라, 단두대에 내민 내 머리를 흰 칼로 친다하여도, 그것은 마치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은 것이다"란 말이다.

자성을 깨쳐 대도를 성취한 도인에게는 아무리 높은 벼슬이라도 세속의 오욕락에 물들지 않는 청정함 그 자체인 것이다. 진나라왕 의희가 승조 대사를 재상(宰相)으로 몇 번을 간청(懇請)했으나, 거절하자 왕명을 거역한 대역죄로 참수형을 당하면서 남기신 본래공(本來空)의 소식이다. 사성제의 고(苦)와 집(集)의 원인인 번뇌, 무명으로 인한 갈애(渴愛)도 오음성고(五陰盛苦)에서 비롯된 것이다. 색온(色蘊)은 우리의 육신을 나의 것, 영원한 것, 늘 아름다워야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아상(我相)의 집착서 오는 고통이니, 무아(無我)를 깨달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사대(四大)로 구성된 색(色)은 무상(無常)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며, 괴로운 것은 내가 아닌 것이다.

"'이 뭣고' 로 오온을 비춰 봤을 때, 반야지혜가 그 밝음을 드러내며, 인간의 생성과 소멸의 모든 과정 또한 텅 빈 공이며, 무명과 고집멸도 또한 그렇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내 몸을 중심으로 나(我)라는 아상(我相)과 나의 것이라는 허망한 집착 때문에 모든 불행 등 고난이 생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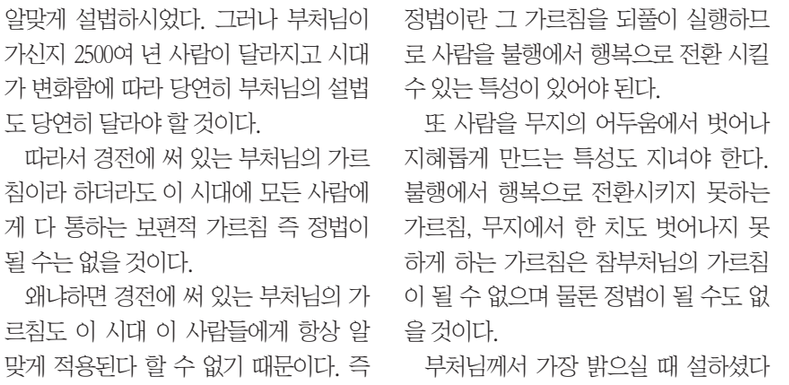
수온(受蘊)은 인간의 정신작용 가운데 괴로움이나 즐거움 같은 느낌이나 감정을 말한다. 좋은 느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기분 나쁜 것은 화(禍)를 내게된다. 그래서 좋은 느낌에 대한 갈망이 지나치면 술, 마약, 도박 같은 중독으로 이어진다. 상온(想蘊)은 마음속에서 어떤 것을 떠올리는 생각과 관념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상(想)은 지식, 사상, 이념과 같은 지식이나 이지적(理智的) 심리현상의 밑바탕이 된다.

행온(行蘊)은 심리현상을 포괄하며, 행위를 낳는 의지작용, 행동을 유발하고, 하고 싶어하는 의욕과 충동을 말하는데, 하고자 하는 의지나 욕구가 항상 충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괴로움이 배가(倍加) 된다.

식온(識蘊)은 식별, 인식, 판단하는 작용을 말하며, 수 상 행온에 대한 인식이며, 마음의 작용 전반을 총괄하는 주체적인 마음의 활동을 말하며, 식(識)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수, 상, 행이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데, 그 분별의식이 작용에 따라 아(我)에 대한 집착이 강하게 일어나서 본래 오온으로 구성된 나라는 존재는 실체가 없는 무아(無我)이며 텅빈 공(空)일 뿐이지만, 이 식(識)에 의해 잘못 분별인식 됨에 따라 '있음' 이 되어 착각을 일으키며 결국 괴로움(故)이 되는 것이니, 그 한 생각 뿌리를 '이 뭣고' 로 매 순간 알아차리고 제거하는 것이 참 수행이 되는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 경 상 도 010-4187-0062
강 원 도 019-396-1110 | 전 라 도 011-248-6298
충 청 도 010-6545-3350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윗 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기미, 손발톱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물린 후, 머리염색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